

북한의 민족주의 :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徐 載 鎮*

◁ 목 次 ▷

- | | |
|--|--|
| I. 서 論 | 화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 |
| II. 북한에서의 민족주의 개념에 대
한 태도 | 우리식 사회주의 |
| III.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권의 변화
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서의
주체사상의 형성 | V.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
화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 |
| IV.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 | 조선민족제일주의 |
| | VI. 결론 : 북한 민족주의의 특성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 |

I. 서 論

수천년 동안 통일된 국가였던 남북한이 외세에 의하여 분단되었고, 남북에 나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핏줄을 지닌 혈연공동체이며,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남북한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는 민

*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족주의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우리의 새정부가 민족주의적 통일방안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이 민족대단결론을 주장하는 등 민족주의가 통일문제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남북을 이념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고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정당한 통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것이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민족적 요구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통일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리라고 보여진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북한도 사실상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조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때 북한에도 국제적 현상과 더불어 민족적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국민국가의 건설, 국경 유지의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민족적 정체감 또는 민족적 의식이 민족주의적 현상의 일부라고 볼 때 북한에서도 ‘민족주의적’ 현상은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북한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념이자 유일한 이념으로 주장되는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있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념적 목표로 삼는 등 모든 영역에서 지도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동시에 우리의 통일정책수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주의에 급격한 변화가 일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주체사상을 여러가지 내용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배타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여러가지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신문, 라디오 및 TV를 포함한 모든 대중매체에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1986년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최근에 단행본으로 된 이론서에서 체계화되어 발전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북한에서 민족주의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나아가 1991년 8월 1일에 김일성이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담화에서 자신이 민족주의자임을 주장하였고 또 금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여 남한에 대하여는 민족주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조아계급의 전유물이라고 거부해오던 북한이 민족주의 개념을 부활시키는 배경이 무엇인가? 왜 1986년이라는 시점에서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적 내용으로 변용되고 있으며, 김일성이 현시점에서 새삼 자신을 민족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북한 민족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특성을 구명하는 것이다.

II. 북한에서의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태도

사회주의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 까닭은 첫째로 사회주의자들은 19세기 유럽에서부터 민족주의가 그 주요 담당자인 부르조아의 이익에 봉사하였다는 인식이다. 즉 민족주의는 토착부르조아들에게 국내시장을 보장해주었고 그들의 해외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제국주의의 형태를 띤 민족주의는 식민지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왜곡시키며 식민지 프로레타리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오로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만 몰두하고 민족주의를 계급투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¹⁾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은 마르크스의 이론적 예견과는 달리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운동의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간의 관계에 관한 인식에는 몇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공허한 허구로 드러나자 많은

1) Horace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p. 27.

사람들은 정반대의 견해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노동운동을 자연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²⁾

반제국주의운동에서 민족주의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레닌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민족운동을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닌은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만이 제국주의의 진정한 적대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주의가 소수민족의 민족운동에서 프로레타리아가 그 계획을 완수하는 것을 돕는 하나의 효소 역할, 하나의 박테리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민족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민족주의를 변호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범위를 진보적인 민족운동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진보적인 민족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민족문제에 대한 레닌의 본질적 원칙이었다.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민족문제에 관한 레닌의 가장 독창적인 공적은 민족과 계급을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그의 시도에 있었다. 그러나 레닌에게 있어서 민족자결권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전술적 문제였고, 따라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아니었다.³⁾

레닌의 이러한 온건적 인식과는 달리, 비타협적 국제주의자로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스탈린을 들 수 있다. 스탈린은 철저한 계급적 관점에 기초하여 민족주의에 대하여 강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데이비스(Horace Davis)는 스탈린보다 민족주의에 대하여 더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공산주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철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로자룩셈부르크는 민족의 억압은 자본주의적 지배의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보고 자본주의를 제거하지 않고는 민족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⁴⁾

2) *Ibid.*, p. 31.

3)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서울: 까치, 1989), p. 234.

4) 위의 책, p. 234;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p. 103.

북한은 사회주의의 이러한 인식들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주의란 자본주의제도에 그 사회계급적 근원을 두고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민족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계급적 근원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은 그 계급적 본성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사회주의 사회에는 민족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계급적 근원이 없다고 인식되는 것이다.⁵⁾ 북한은 민족주의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그것이 협소한 부르조아들의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 이익이라는 간판으로 가리우고 민족들간의 반목과 적의를 고취함으로써 결국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이익을 희생시켜 근로자들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파괴하는 반동적인 사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1985년에 간행된 「철학사전」의 민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거부되는 핵심적인 이유를 읽을 수 있다.

“민족주의는 우선 대내적으로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을 떠난 ‘전민족적 이익’을 내세움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계급적 이익과 민족적 이익을 자각할 수 없게 한다.” 민족주의는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이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한다.”

김일성에게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 공격적 속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 것 같다. 그래서 민족주의 개념보다 외부적 공격, 침습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고 폐쇄하여 방어하는 속성을 가진 ‘주체사상’ 개념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일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주체사상은 절대로 민족주의로 불려져서는 안되는 사상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체사상은 반민족주의적 사상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기능과 그 결과가 민족적 이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 판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대신에 사회주

5)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27.

6)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53.

의적 애국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그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 계급의식, 자기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과 민족자주의식, 자기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키고 있는 사상”⁷⁾이라고 정의되는데 계급주의적 세계관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고 주장한다.

III.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서의 주체사상

1. 정권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형성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국제연대를 고수하다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자주’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주체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대내외적 조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련의 수정주의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격변에 대한 북한의 대응

주체사상이 형성된 국제적 배경은 사회주의권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북한에 침습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몇달 후부터 스탈린의 우상숭배는 소련에서 완화되기 시작했고 수정주의적 징후가 나타났으며 1954년말 이후에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1956년 20차 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하는 연설을 통해 인류의 진보적 지도자, 세계의 영감, 소비에트 인민의 아버지, 과학과 학문의 거장, 군사적 천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등 최고의 찬사로 숭배되었던 스탈린이 사실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고문광이요,

7) 위의 책, p. 351.

대량 살륙자이며, 소련을 재앙으로 몰고간 군사적 무식쟁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고 스탈린의 편집광적인 망상, 고문, 숙청에 관한 온갖 죄상을 낱알이 폭로하였던 것이다.⁸⁾ 후르시초프의 이 연설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도덕적 황폐화에 대한 고발은 사회주의권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의 영향은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反蘇 민족주의 감정이 발달해 있었는데 후르시초프의 이 연설은 화약에 불을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폴란드에서는 1956년 6월 포즈난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의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를 하다가 폭동으로 발전하자 군대가 투입되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53명, 부상자 300명, 체포자가 323명에 달하는 이른바 포즈난 사건이 발생했다.

헝가리의 1956년 사건은 훨씬 대규모 사건으로 발전되었고 결국은 소련 군대가 투입되어 진압되었다. 당원, 지식인, 학생, 공장노동자에 이르는 모든 사회집단과 계급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전국적 혁명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적 혁명적 운동은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지도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⁹⁾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내부 변화를 김일성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사주와 반혁명분자들에 의한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미칠 영향을 매우 우려하였다.

“제국주의 간섭자들과 헝가리 반혁명분자들에 의하여 도발된 헝가리에서의 반혁명적 폭동은 헝가리 노동혁명 정부의 요청에 의한 소련의 국제주의적 원조와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헝가리 인민의英勇적 투쟁

8)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50-51.

9) 伊東孝之, “동구혁명과 비스탈린화,” 동구사연구회 편, 좋은책 편집부 역, 「격동의 동구현대사」 (서울: 좋은책, 1990), p. 197; Howard Davis and Richard Scase,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울: 느티나무, 1990), p. 185.

에 의하여 급속히 진압되었다.”¹⁰⁾

“헝가리 인민은 국내 반혁명세력을 타도하고 자기들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빛나게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중심에 새 전쟁의 온상을 조성하려던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¹¹⁾

헝가리 사태는 노동자들의 반사회주의, 반소 민족주의운동이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개입했고 또 소련군의 개입없이 진압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국적인 대규모적인 격렬한 시민봉기였는데 북한에서는 그 진실이 왜곡되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소련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1989년에 일어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바로 이때 1956년에 일어났을 것이다.

소련과 동구에서의 반소 민족주의 시민봉기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외부의 ‘불건전한 바람’의 침습을 차단하기 위한 폐쇄정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부와의 단절과 폐쇄의 전략은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최근에도 주된 대응책으로 채택된 전략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김일성의 한 연설은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잘 보여준다.

“만일 우리당과 당원들이 사상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온갖 반맑스주의적 사상적 관점 경향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¹²⁾

10) 김일성, “체코공화국 정부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김일성 수상의 연설 (1957년 4월 1일),” 「로동신문」, 1957. 4. 2.

1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 (1957년 4월 4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p. 74.

12) 김일성,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40주년 경축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회에 참가한 우리당 및 정부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1957년 12월 5일),” 위의 책, p. 37.

1958년에 도입된 강력한 주민감시체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58년에 도입된 식량배급제도는 당시의 농업집단화정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주민통제의 정치적 의도가 더 크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농업집단화를 실시한 중국이나 소련에서는 북한에서와 같은 엄격한 식량배급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데서 알 수 있다.

나. 스탈린격하운동과 우상숭배비판에 대한 북한의 대응

후르시초프의 우상숭배비판은 이전의 소련에 대한 김일성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했다.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가 대두되기 이전까지 김일성은 소련과 스탈린에 철저히 밀착되어 있었다. ‘자주’ 또는 ‘주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종속의 전형적 사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존성때문에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배우자’라는 구호아래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온 정력을 기울였으며 스탈린에게 ‘최대의 경의와 감격’을 표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스탈린 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족의 해방자이며 후원자이고 은인이며 벗인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 만세! 이러한 북조선인민의 해방과 발전이 오로지 당신의 두터운 고려와 붉은 군대의 원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조선인민은 깊이 인식하고 당신에게 최대의 경의와 감격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당신의 원조가 끝끝내 있을 것을 우리 조선인민은 확신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필연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¹³⁾

그러나 이러한 소련과의 관계는 스탈린 사망후 등장한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와 스탈린 우상숭배비판, 북한의 김일성 우상숭배에 대한 소련의 비

13) 김일성, “스탈린 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1946년 8월 28일),” 통일원, 「조선노동당 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통일원, 1980), pp. 18-19.

판으로 급냉각되었다. 김일성의 우상숭배경향에 대한 소련의 비판에 대하여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 내정간섭이라고 매우 노골적으로 반격을 하고 나섰다.

“원조를 준다는 자만심으로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완전히 무관하다. 자본주의 나라간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조건이 붙어있는 ‘원조,’ 내정간섭을 전제로 한 ‘원조’는 사회주의 나라간에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나라의 원조는 그것을 받는 각각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강고히 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 발전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당대회를¹⁴⁾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고, 어떤 당의 정책과 결정을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공동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당에 내리 먹이려 하고 있다. 어떤 당의 결정이나 조치는 그 당 내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지 결코 다른 당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특히 소위 ‘개인숭배반대’운동을 다른 당에 내리먹이려 하고 그것을 간관으로 해서 형제당, 형제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들 나라의 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확실히 ‘개인숭배반대’ 소동에 의해 수많은 형제당이 소용없는 ‘열병’을 앓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개인숭배반대’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행동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¹⁵⁾

김일성에게는 개인숭배비판 운동과 수정주의가 북한에 침습되지 못하게 하여 정권을 수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급선무로 대두하였다. 외부 사조 차단과 사상무장 강화가 모색되었다. 그것은 곧 차단과 단절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당 내에서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정주의자의 활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정주의자에 압력을

14)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한 소련의 제20차 당대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15)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 10. 28 논설.

가하고 그들을 고립시켜 수정주의가 대중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수정주의에 끌어들여지지 않도록 하며 공산주의자와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속시켜 전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입장에 확고히 서도록 하며, 공산주의적 대오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과 모든 공산주의자를 보다 단련시키고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준비시킬 수 있다.”¹⁶⁾

다. 김일성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김일성의 대응

주체사상이 형성된 국내적 배경의 하나는 김일성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명분을 찾는 것이었다.¹⁷⁾ 김일성에 대한 비판은 특히 한국전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심화되었다. 또한 소련의 개인숭배비판의 사조에 편승하여 북한에서도 반김일성세력들이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일성은 전쟁중에 허가이, 박헌영 및 이승엽 등 남로당일파를, 1956년에 연안파를, 1957-59년 사이에 소련파를, 그리고 1967년에 갑산파를 각각 숙청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반종파투쟁을 추진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당화 방법이 강구되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반대세력인 이절집단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확립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적 제거행위를 합리화시키려 했다. 그는 ‘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1955년 12월 28일의 연설에서 그의 많은 정적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주체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였다. 당시는 주체라는 말이 이론적·논리적 해석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일성 자신이 하나의 구호형식으로 제기하면서 자신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데 하나의 이념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번에 박창옥 등이 범한 과오도 그들이 조선문학운동의 역사를 부인한 데 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카프’ 즉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참가한 우수한 작가들의 투쟁도 없다.…박창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을

16) 위의 글.

17)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95.

연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조아 반동작가인 이태 준과 사상적으로 결탁하게 되었습니다.···박영빈동무는 소련에 갔다와서 하는 말이 소련에서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방향이니 우리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를 집어치워야 하겠다고 했습니다.···허가이와 박일우의 시비는 당내에서 규율을 악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박창옥과 기석복에 대한 비판도 너무 늦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당시에 비판하였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박헌영도당과의 투쟁과 반간첩투쟁의 경험을 당원들 속에서 철저히 침투시켜 그들로 하여금 간첩을 정확하게 잘라낼 줄 알게 하여야 합니다.”¹⁸⁾

1956년의 소위 반종파사건을 통하여 김일성을 공격하던 윤공흙, 서희, 이용규, 김강 등이 중국으로 망명하고 최창익과 박창옥이 출당되었다. 그러자 소련과 중국이 이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 북한 내정에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최창익과 박창옥을 중앙위원으로 복구시키고 다른 4인에 대한 출당처분도 취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자주’를 결심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¹⁹⁾ 김일성은 자신의 정적들이 교조주의, 형식주의, 종파주의, 관료주의 등에 젖어있어 혁명과업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하고 주체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 중국의 문화혁명의 영향에 대한 김일성의 대응

1966년경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은 김일성에게 소련의 우상숭배 비판 못지 않는 충격을 주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북한에 준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홍위병의 대자보를 통하여 북한과 김일성을 공격하였다는 점이다. 1964년 후르시초프가 실각하자 북한은 새 지도자인 브레즈네프와 코시킨을 상대로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중국에게는 불쾌했을 지도 모른다. 중국 홍

18)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69.

19) 한홍구, “알기쉬운 북한 현대사,”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서울: 현장문학사, 1989), p. 110.

위명은 1967년 1월부터 김일성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원로장군들의 이름이 서명된 한 대자보는 김일성을 “수정주의자이자 후르시초프의 추종자”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중국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혁명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²⁰⁾

둘째, 동구사회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대중에 의한 불만의 폭발이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어떤 면에서는 모택동이 도전한 권력투쟁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관료주의에 대항하는 대중의 불만이 폭발한 면도 있다.²¹⁾

김일성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북한에 침습되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나 소련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변화도 김일성에게는 충격이었다.

마. 항일혁명투쟁의 복원

소련과 중국 및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변화로부터 초연하여 단절하고자 하는 전략은 쉽게 항일혁명투쟁의 외세저항 및 주체의 논리와 결합되었다. 김일성은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어나가는데서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항일혁명투쟁과 주체를 연결시켰다. 주체사상은 민족독립운동에서 그 역사적 뿌리를 찾는 학문적 작업에 의하여 역사적 정통성이 粉飾되어졌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지배이데ologi인 주체사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일투쟁의 전통을 1955년부터²²⁾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였다. 북한 사회과학을 총동원하여 항일혁명운동의 역사 연구가 추진되어 1955년에서 1967년 사이에 「력사과학」이라는 잡지를

20)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 165.

21) 모리 카즈코, 「중국과 소련」 (서울: 사민서각, 1989), p. 88.

22) 김일성은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근로자」 (1955. 4)라는 글을 통해 1930년대의 항일빨치산 운동을 자기의 것으로 유일 정통화하는 역사의 왜곡을 시작하였다.

통하여 1920-1930년대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에 관한 대대적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1979~1983년 사이에 22권으로 된 조선전사, 1983년에 현대조선력사, 1987년에 조선통사가 발간되었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이 사실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사, 민족해방 투쟁사들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 또는 편찬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혁명을 옳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²³⁾

2. 주체 및 자주 노선의 본질

김일성이 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문건인 1955년 12월 28일의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주체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의 귀절에서 잘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할 당시 주체의 의미는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주노선을 취하겠다는 의도이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단절과 폐쇄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인 독자성으로 요약되는 주체사상의 맥아가 보인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째로 삼켜서는 안된다. 교조주의에 빠지면 결국 그 당은 현실과 인민대중으로부터 유리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말은 바 민족적, 국제적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각국의 당이 주체성과 독자성을 견지하는 문제는 그 나라 혁명의 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각국의 당이 창조한 경험에 대해서는 각각의 당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²⁴⁾

23) 통일원, 「제4차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서울: 통일원, 1988).

24)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 10. 28 논설.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연설에서 사상정치분야에서의²⁵⁾ 주체, 경제분야에서의 자력갱생원칙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노선, 군중노선에 관한 김일성 자신의 주체사상에 관한 최초의 정식화가 제시되었다. 김일성은 1966년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담화를 통해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인 자주노선에 관한 체계화를 제시했다.

“제반 사실은 우리에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와 같이 앞으로도 대내외 활동에서 독자성을 견지할 것이며 자주노선을 관철하여 나갈 것이다.”²⁶⁾

그러나 이 글에서도 아직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다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발표한 공화국정부 정강과 1970년의 제5차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규정되었다. 그에 따라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가 기본노선으로 확고히 표명되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입니다.”²⁷⁾

25)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한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년 4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78-329.

26)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6. 8. 12 논설.

27)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년 12월 16 일),”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88.

소련, 중국 및 동구사회주의의 개혁의 영향을 차단하여 정권을 수호할 목적으로 형성된 주체사상은 정권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차 사회통합, 김일성 우상숭배, 노력동원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발전되었으며 나아가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은 단절의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서의 주체의 논리로 발전시켜 통치의 원리로 활용하였다. 혁명적 군중노선이 그것이다. “군중노선은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군중노선과 혁명의 원칙이 때로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으로 동원되고 천리마운동이나 3대혁명소조운동과 같은 경제적 노력동원에 동원되는 만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철저하게 통치의 이념으로 발전되었다. 주체사상의 원칙은 경제구조에서도 뒷받침되었다.²⁸⁾ 주체사상은 또 김일성에게 충직하고 노동을 사랑하는 신민형 인성으로 개조하는 인간개조사업의 이론적 틀로서 발전되었다.²⁹⁾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민족의 보편적 이익에 충실한 이념체제라기 보다는 정권이데올로기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8) 자력갱생의 원칙도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조건에 대한 피동적 적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상숭배비판에 대한 김일성의 거부로 소련은 지금까지의 기부형태의 경제원조를 대폭 삭감하여 장기차관으로 바꾸어버렸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김일성은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에 대한 원조 요청차 50일간(1956.6.1 7.19) 소련과 동구 제국을 순방하였다. 그러나 원조획득이 좌절되어 결국 5개년 계획은 자체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외부로부터의 원조조달에 실패한 북한으로서는 노력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29)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재진·김태일, 「北韓住民의 人性研究」(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조.

IV.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우리식 사회주의

단절과 차단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특성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등장한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을 통해서 확연히 부각되었다. 1978년에 중국의 덩소평이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과 소련에서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사회주의체제 개혁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1950년대 중반과 같은 또 하나의 정권위기적 상황이었다.

다음의 김정일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대응책으로 외부사조의 차단과 사상교양강화를 강조한 것은 주체사상이 처음 형성되던 시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 침투를 강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을 불어 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사상혁명을 기본적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 원리교양과 당 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 교양, 사회주의 애국교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³⁰⁾

30)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 5. 27.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소위 ‘우리식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중국 및 소련의 개혁의 바람이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중국, 동구, 소련에서 개혁을 해도 그것은 북한과는 무관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 사조에 대한 배척을 핵심적인 원리의 하나로 하는 주체사상이 이 점에서 매우 설득력있게 사용되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당의 노선과 방침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우리식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이란 다름 아닌 우리 당의 노선과 방침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므로써 온 사회에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³¹⁾

‘우리식 사회주의’는 50년대와 같은 사회주의권 전체의 위기의 상황속에서 외부와 단절함으로써 정권유지를 하려는 주체사상의 본질이 분명히 보여진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주체사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독자노선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새로운 단어로 선택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조선민족제일주의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이론적 대응으로서 ‘우리

31)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며 일해가자,” 「조선중앙방송」, 1991년 9월 2일.

사회주의'와 동시에 나타났던 또 하나의 이론적 변용이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다. 1985년까지만³²⁾ 해도 북한은 민족주의를 “전인민적 리익을 내세우면서 자기민족내의 부르조아지의 리해관계를 합리화하는 사상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주의를 거부해왔었다. 그러나 1985년을 기하여 북한이 갑자기 민족주의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이름의 민족주의를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985년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기 시작한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주체사상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기능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사회주의로 개혁을 추진하다가 체제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북한의 사회주의가 여타 사회주의와는 본래부터 다르며 지금도 북한 고유의 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변화의 바람이 북한내부에 침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정교화하여 북한이 소련, 동구, 중국과는 찢줄과 언어가 다른 민족임을 주장하여 그들의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론적 노력이다. 1985년 무렵 민족의 징표와 민족주의를 해설하는 논문이 대거출판되었고 1989년에는 206페이지에 달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이라는 단행본이 출판되기에 이르렀다.³³⁾ 이러한 논문들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개념이 이전의 개념과 매우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을 구성하는 요인, 즉 '민족의 징표'에 관하여 북한은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모든 논문에서 교과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32) 민족주의를 계급론적 관점에서 해설한 「철학사전」이 간행된 해임.

33)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 10);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 2);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 「남조선문제」 (1986. 2);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민족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됩니다.”³⁴⁾ 이러한 내용은 그 이전의 계급론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개념 정의와는 매우 다르다.

“민족의 징표에 관한 문제는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공고한 사회적 집단으로 결합되게 하는 공통된 기초에 관한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민족의 징표에 관한 개념을 전면적으로 해부하시고 주체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결합하는 공통성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라는 것을 천명하심으로써 민족에 관한 주체적인 학설의 기본내용을 더욱 뚜렷이 밝혀주시었다.”³⁵⁾

이처럼 민족주의의 개념에 계급론적 해석이 삭제되고 갑자기 민족의 개념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으로 정의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개혁과 개방에서 북한이 느낀 위기의식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폐기하고 민족주의, 그것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민족은 중국,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과는 핏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독자노선과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더 공고화 하고자 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이 1986년에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을 때의 문맥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곧 중국과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이행되더라도 북한은 그들과는 다르게 현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4)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 10), p. 14.

35)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해,” p. 6.

“내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들에게 충실할 수 없으며 자기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발전된 나라에 대하여서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나라의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라고 하여 언제나 옳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러한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여 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나라의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주성을 비워버리고 큰 나라들이 하는 것을³⁶⁾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 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³⁷⁾

중국이 시장사회주의체제로 이행하고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더라도 북한은 ‘자주성’을 견지하여 우리식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가 대변혁을 경험할 때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단절과 차단을 통해 김일성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주체사상을 만들었듯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론 역시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속에서 외부의 변화가 국내에 침투하여 주민을 동요시키는 것을 막음으로써 김일성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권이데올로기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권수호를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민족주의를 들고 나올만큼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의 민족에 관한 개념을 해설하는 리규린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시작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 및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어나간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36) 중국의 개혁·개방노선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37)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근로자」(1987. 7), p. 11.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³⁸⁾

이 짧은 문단은 세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이제 자주성의 단위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떠나 민족국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붕괴해버린 사회주의에서 연대를 느끼고 도움을 구할 수가 없게 된 마당에서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개념을 부활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란 이제 더 이상 일반 유형의 사회주의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2년에 개정된 신헌법이 구헌법의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여 버리고 대신에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대체한 것은 이것과 관련하여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민족주의를 들고나오는 목적은 자주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주성이란 소련과 중국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뜻이다.

셋째, 북한이 사용하는 민족의 개념은 결코 남한민족을 포함하고 남한민족을 북한의 ‘민족문제’의 대상으로 의도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민족을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정의한 것은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 소련,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민족과는 북한의 민족이 핏줄, 언어, 지역의 면에서 하나도 공통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의 개혁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³⁹⁾

조선민족제일주의론도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김일성 우상화의 논리로 연결되었다. 앞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 핏줄과 언어 및 지역의

38) 리규린, “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p. 6.

39)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 범 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 남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이 경우는 부수적인 중요성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측면에서 조선민족이 타민족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론임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다른 민족과 다르며 ‘제일’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의 풍요로운 물질생활이나 사회보장, 민주주의가 아니라 김일성과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이다. 따라서 조선 민족제일주의도 결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로 귀결된다.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원천력에서 근본핵을 이루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 것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봉사시켜 나가시는 인민대중의 가장 위대한 수령, 참다운 인민의 수령이시다.…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지닌 존엄있고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새롭게 발전 풍부화시키시고 빛내여 나가시며 인민대중을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로 이끌어 나가시는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 인민의 스승이시다.”⁴⁰⁾

또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일제시대와 비교시킴으로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은폐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비현실적인 인식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대번영의 시기에 살고 있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나라가 오늘은 세계의 한복판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장서 개척해나가는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로 되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 ‘영웅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민족의 영예와 자랑을 온 세상에 더 깊이 떨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⁴¹⁾

40)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p. 138.

41) 김일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기본핵,” 「철학연구」 (1991. 2), p. 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으로서 단절과 폐쇄를 위한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이론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 북한 민족주의의 특성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밝혀진 것은 5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의 과정에서 형성된 당시의 주체사상의 내용이나 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권 대변혁의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우리식 사회주의’나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의 내용은 모두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들은 모두 사회주의권의 변화의 바람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그러한 단절전략을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북한이 스스로 주체사상의 역사적 뿌리를 항일민족운동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반외세적 이념을 더 심화시켜 외세와의 단절을 더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를 외세에 대한 저항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주체사상은 극단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단절과 저항의 전략은 남한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주체사상이 한민족에게는 非민족적이다.

그런데 붕괴해버린 사회주의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연대를 느끼거나 도움을 구할 수가 없게 된 시점에서 북한은 단절을 하되 새로운 논리로 단절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도록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을 그 핵심적 징표로 하는 민족의 개념을 사용하여 북한이 소련, 중국, 동구사회주의 국가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1986년에 처음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제기했던 의도가 북한의 민족이 중국, 소련, 동구의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

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개념이지 남한민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앞에서 강조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대로 북한의 주체사상의 본질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란 민족전체의 보편적 이익에 기여하는 사상이어야지 특정한 한 정권에 기능하는 사상이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다. 북한이 철저한 단절과 폐쇄를 고수하는 것은 김일성의 우상화정권을 지속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폐쇄와 단절이 자력갱생이라는 경제발전모델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가? 후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증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의 가장 큰 기능을 폐쇄와 단절을 정당화하고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김일성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 이념이라기보다는 권력이데올로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주체사상의 이러한 단절과 차단 특성을 극복하여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이 단절과 차단, 폐쇄로 특징지어지는 주체사상을 폐기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추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견고한 분단상태에서 이질화된 남북한 민족을 다시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재생시키는 길이다. 북한이 최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완화하고 외부와의 단절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나마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크게 다행한 일이다.

또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개방된 국제사회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 남북간에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전체를 자멸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는 세계적 탈냉전의 추세를 한반도에도 실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민족주의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켜 남북한의 민족이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아직 정치적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족복리를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이 북한의 단절전략을 극복하는 길이다. 오늘

날의 세계사회는 군사경쟁 시대에서 경제경쟁의 시대로 이행되었다.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이행할 때 상호간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함으로써 가장 값싼 비용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로운 민족전체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자주란 곧 단절과 폐쇄라는 논리로 빠져버린 북한 주체사상의 논리를 수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민족자주는 경제적 경쟁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현실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